

제목	국문	개원의들의 표준예방접종지침에 대한 이행실태			
	영문	DoctorW's compliance to korean immunization guide			
저자 및 소속	국문	이훈재,우선옥,이태진,이석구 ¹ ,조형원 ² ,배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건양대학교 경영정보관광병원학부 ²			
	영문	Hun Jae Lee,Sun Ock Woo,Tae Jin Lee,Sok Goo Lee ¹ ,Hyong Won Cho ² ,SangSoo Bae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¹ ,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University.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² , Konyang University			
분야	보건관리 [전염성질환]	발표자	이훈재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예방접종은 많은 보건사업의 영역 중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 예방접종을 주요수단으로 하는 전염병 관리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의 안전성 확보와 이를 통한 적기 접종률의 제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공공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예방접종 서비스의 제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접종의 질과 정보관리의 효율성 여부에 따라 국가전염병관리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 대해 예방접종의 실시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예방접종지침상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원의들의 인지도 및 이행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p> <p>2. 방법</p> <p>본 연구는 예방접종을 흔히 실시하게 되는 소아과 및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발간된 두 전문과목 분야의 개원의 주소록을 이용하여 각각 5:1 무작위계통 표본추출을 함으로써 총 826 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중 소아과 개원의는 481 명(58.2%)이었으며, 나머지 41.8%인 345 명은 가정의학과 개원의였다. 조사는 연구진이 2000 년 표준예방접종지침에 근거하여 자체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우편설문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차 조사는 2001 년 2 월 24 일부터 3 주간 시행되어 16.9%인 140 명으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응답율을 높이기 위한 2 차 설문조사는 2001 년 3 월 17 일부터 4 주간 실시되어 추가로 83 명으로부터 회신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주소불명자 52 명을 제외하면 유효응답율은 27.0%(223 명/826 명)였다. 조사내용으로는 개업의의 일반적 특성, 표준예방접종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인지 및 이행여부, 기타 예방접종서비스 공급관련 행태 등이었다.</p> <p>3. 결과</p> <p>1) 개원의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최신 지식 및 시행기준 등의 습득을 위해 주로 의존하는 정보원으로는 소속 학회가 83.7%로 대부분이었고 다음으로는 전문서적 또는 잡지(6.5%), 의사협회의 공지사항(5.1%) 순으로 나타났으나, 표준예방접종지침 등 보건당국의 권고사항을 우선 따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3명(1.3%)에 불과하였다.</p> <p>2) 2000 년 발간된 표준예방접종지침의 전문을 검토해본 개원의는 전체 응답자의 43.8%정도 였으며 일부내용만 개략적으로 읽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45.1%였다. 그러나</p>					

나머지 11.1%에서는 전혀 읽어본 적이 없거나 표준예방접종지침의 존재여부도 알고있지 못하였다.

3) 개원의들이 평소 소아를 진찰할 때 가능한 한 예방접종의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78.4%로 나타났다.

4) 예방접종시 의사에 의한 예진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83.4%였으며, 그 결과를 별도의 예진표 또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71.8%로 나타났다.

5) 전체 조사대상 개원의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의 금기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방접종의 실시를 보류했던 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전체의 79.6%였는데, 이들 사례 중 표준예방접종지침상의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85.5%에 이르렀다.

6) 표준예방접종지침상의 예방접종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원의들이 예방접종의 실시를 보류하게 된 주요요인으로는 감기 등의 가벼운 질환에도 이상반응을 우려하여 접종을 기피하거나, 백신의 종류에 따른 접종간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7) 예방접종실적을 법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39.4%에 불과하였으며, 매월 관할보건소로 보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개원의는 74.5%였다.

8) 백신의 역가와 안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백신전용냉장고를 보유하는 경우는 전체의 45.4%였으며, 정전을 대비한 자체발전기의 보유율은 2.3%에 불과하였다.

9) 조사대상 개원의의 21.7%는 백신의 안정성에 실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으며,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의 시행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11.5%였다.

4. 고찰

예방접종의 안전성, 적기 접종율의 상승 그리고 예방접종 관련 정확한 정보관리는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 예방접종서비스 공급자들의 표준예방접종지침에 대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민간부문 개원의들에서의 표준예방접종지침에 대한 이행율과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보건당국은 표준예방접종지침의 지속적 보완과 함께 민간부문 공급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